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2020년 말까지 에이즈 확산을 멈추겠다는 계획이 잘 진행 중임을 발표하고 에이즈 환자를 위해 치료 접근성을 확장하는 새 규정 제안

새 자료, 주에서 에이즈 감염을 2020년 말까지 줄이는 계획이 잘 진행 중임을 나타내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 전에 새 규정으로 에이즈 무보험자 치료 프로그램에
들 자격이 되는 최소 수입 기준을 늘릴 예정*

새 에이즈 진단은 사상 최저로 계속해서 떨어져

매해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에이즈 치료 받고있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2020년 말까지 에이즈 확산을 막는 계획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무보험 에이즈 환자를 위한 치료의 장애를 없애며 접근성을 확대할 새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은 에이즈에 맞서 싸우는 분야에서 국가를 선도하는 뉴욕의 명성에 기반합니다. 뉴욕에서 새롭게 에이즈를 진단받는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확산을 막으려는 주의 노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은 12월 1일이며 뉴욕에서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 활동이 12월 4일 화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12월 5일에는 뉴욕주 확산 종료 회담(NYS Ending the Epidemic Summit)이 열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대단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자료는 2020년까지 확산을 끝내려는 목표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급속한 확산을 막으려는 우리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새로운 규정은 에이즈에 걸린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추가 전염을 막도록 도울 수 있게 보장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이즈 환자 치료 서비스에 투자하여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을 맞아 뉴욕은 에이즈를 진단받은 사람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보험을 든 사람과 무보험자들을 위하여 장애물을 없앨 것입니다. 우리는 에이즈에 맞서 싸우며 낙인을 없애는 분야에서 국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모든 뉴욕 주민이 필요하고 받아야 마땅한 자원을 갖고 지원을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무보험자와 부분 보험자에게 에이즈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에이즈 무보험자 치료 프로그램(HIV Uninsured Care Programs, HUCP) 규정을 수정하여 수입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자산 검사를 삭제할 예정입니다. 현재 에이즈 무보험자 치료 프로그램(HUCP)에 들어가려면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435%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환급성자원은 25,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신청 자격 수입을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500%까지 높이고 자원의 한도를 없앨 예정입니다. 규정안은 12월 중순에 발표되고 2019년 초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에이즈 무보험자 치료 프로그램(HIV Uninsured Care Programs)은 보험이 없거나 부분적으로 든 뉴욕 주민 중 에이즈 진단 받은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계획을 포함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 규정은 2014년에 개시되었으며 2020년 말까지 에이즈 감염률을 현저하게 줄이고 최초로 에이즈 확산률을 낮춘다는 주지사의 확산 종료 계획(Ending the Epidemic initiative)에 기반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에이즈 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의료 서비스에 연결하며, 에이즈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의료 서비스에 연결 및 유지하여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를 최대화하는 치료를 받게 하며, 에이즈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노출전 예방요법(Pre-Exposure Prophylaxis, PrEP)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3요소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 덕분에 에이즈의 새 진단 수치가 떨어지고 있으며 진단받은 사람들의 치료 등록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새로운 에이즈 진단은 3년 연속 떨어졌으며 2017년에 2,769로 사상 최저수에 도달했습니다. 2014년 이래 20퍼센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성별, 연령 집단, 인종/민족, 전염 위험 및 지역을 포함한 모든 인구학적 집단을 통틀어 새로운 에이즈 진단수가 감소했습니다. 에이즈 진단에서 인종 및 민족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반면 100,000명당 새 에이즈 진단수는 2007년 이래 비히스패닉 흑인 사이에서 52퍼센트 감소, 히스패닉 사이에서 42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이 개선은 해당 기간 에이즈 진단율이 46퍼센트 감소한 비히스패닉 백인 사이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새 자료는 새롭게 진단받은 사람들과 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함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치료 접근성이 증가된 결과 에이즈 진단을 받고 바이러스를 억제한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에이즈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주사 약물을 사용했던 사람의 수는 2017년 동안 110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Cuomo 주지사가 3요소 계획을 발표했을 때 153이었던 것에서 28퍼센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1990년대 초 에이즈 확산이 절정일 때는 주사 약물을 사용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매년 몇천 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주는 확산 종료(Ending the Epidemic) 목표에 충족하도록 설계된 보건부(Health Department) 정책 및 프로그램에 2,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습니다. 해당 정책에는 간소화된 에이즈 테스트, 용이한 주사기 교환, 미성년자의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서비스의 합법화, 의료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확대, 치료 계획 내 연계 및 유지, 임상적 환경 내 노출전 예방요법(PrEP) 이용성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 감소 서비스는 현재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입니다. 뉴욕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주입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에이즈 협회(AIDS Institute)는 새 에이즈 진단으로 빠른 개시를 목표로 하고 개인과 협력하는 모든 제공자가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신속 개시(Rapid Initiation of Antiretroviral Treatment)에 대한 새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치료 개시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환자들이 3일 안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외래 환자의 경우 치료 개시가 30일 이상 걸려서는 안 됩니다. 신속 개시 정책은 “감지할 수 없는 것은 전염될 수 없는 것과 같다(Undetectable equals Untransmittable, U=U)” 메시지를 뒷받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바이러스량을 가진 사람은 성적으로 에이즈를 전염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건부(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료 이용성을 확장하는 것은 확산을 끝내는 데 매우 중요하며 오늘 발표된 새 규정은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치료는 진단 후에만 가능합니다. 저는 모두가 검사를 받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 것을 권장합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든 사람들을 위해 에이즈 치료 이용성을 확대함으로써 확산 종료(Ending the Epidemic)를 위해 계속 노력하시는 Cuomo 주지사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에이즈에 걸린 뉴욕 주민들의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치료 접근성을 늘리면 환자들이 상태를 더 잘 관리하고 나이에 맞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움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